

알렉산드로스와 제국의 꿈:

영화 "알렉산더"(2004, 올리버 스톤)과 함께 하는 역사 여행

1.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

A. 마케도니아의 흥기

- i. 마케도니아는 1/2 "바르바로이": 폴리스가 아닌 "에트노스"
- ii. 필리포스 2세(359-336): 영토확장, 그리스 압박, 기원전 338년 스파르타 제외 통일
- iii.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의 힘

B. 알렉산드로스의 즉위와 '복수전'

- i. 알렉산드로스, 가장 유명한 (세속의) 인간 but 신비와 논쟁
- ii.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은 분명하지만, '인간' 알렉산드로스는 elusive.
- iii.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: 일리아스와 아킬레우스
- iv. 기원전 336년, 필리포스의 암살로 20세에 즉위
- v. 그리스 내의 불안정 일소 후 불만을 외부로

C. 알렉산드로스의 "전격전"(?)과 제국

- i. 10년만에 대제국 건설
- ii. 334 – Granicus; 333 – Issus; 332 - Siege of Tyre and Gaza; 332– 331 Egypt (Alexandria); 330 – 328 North East; 326 - Indus River; 324 Babylon
- iii. 323년 급사, 33세; "계승자들"의 경쟁
- iv. **Egypt** – Ptolemy; **Asian empire** – Seleucus; **Macedonia and Greece** – Antigonus

2. 헬레니즘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

A. 그리스 문화 전파와 동서 융합(?)

- i. 통혼정책: 다레이오스의 딸 등과 결혼
- ii. 외국 신들 숭배; 교역, 이주 장려

B. 헬레니즘 과학

- i. 수학: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
- ii. 지리학: 에라토스테네스, 아리스타코스, 히파르코스
- iii. 천문학: 프톨레마이오스

C. 헬레니즘 예술

- i. 파로스의 등대를 비롯한 공공건축물
- ii. 라오콘 군상,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, 밀로의 비너스

D. 헬레니즘 철학

- i. 견유학파(Cynicism): 디오게네스, 세속에 대한 경멸
- ii. 스토아 학파: 제논, 수용, 인내, 용기 등의 덕목; 기독교와 연관

- iii. 에피쿠로스 학파: 사후세계 부정, 행복과 고통이 척도; 삶의 향유와 지식 추구
3. 알렉산더, 2004: 영화가 추구하는 알렉산더와 한계
- A. 역사 영화를 보는 우리의 자세
 - i. 예산, 배우, 일정, 감독의 역량: 타협, 선택과 집중
 - ii. "inspired by": 고증오류 vs. 감독의 예술적 선택
 - iii. "알렉산더"의 경우
 - 1. 이집트 원정, 그라니코스 전투, 테베, 페르세폴리스 등 생략. 고르디오스의 매듭!
 - 2. 바빌론 왕궁, 펠라 왕궁, 장신구 등 정확하게 재현. 필리포스의 흥터(?)
 - 3. 군사장비 정확히 재현: 마케도니아 장창 부대. 가우가멜라 전투!.
 - 4. 알렉산더의 사자 투구? 헤라클레스?
 - B. 민족을 초월하는 제국의 이상: 정복인가 통합인가?
 - i. 역사 자문 Lane Fox: 알렉산더에게는 고상한 목적이 있었다!
 - ii. 최근 연구 경향: 'minimalist'. 정복 자체를 위한 정복일 뿐. 헬레니즘은 부산물.
 - C. 알렉산더의 sexuality에 대한 (과도한) 집착
 - i. 올림피아스, 록사나에 대한 묘사
 - ii. 고대의 성애: 현대의 '동성애' '양성애'와 개념적, 문화적으로 다름
 - D. "내가 니 애비다"의 문제
 - i. 알렉산더, 필리포스 2세, 그리고 어머니: 너의 아버지는 제우스다!
 - ii.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의 고통: 단순한 프로이드?
 - E. 우유부단한 주인공, Colin Farrell
 - i. 인상적 성격 창출 실패: 광기 부족, 생각 과다
 - ii. 불굴의 의지로 세계를 정복한 인물?
 - Comp. 흔들리는 주인공, 아킬레우스 (트로이, 2004)
 - 그리스 원형과 브래드 피트의 연기 비교
 - 연출의 실패인가? (그리스) 고전을 재현할 때의 문제점
 - F. 트로이(2004, Brad Pitt), 클레오파트라(1963, Richard Burton, Elizabeth Taylor 주연)와 비교
 - i. 전투장면: 알렉산더가 더욱 정교하고 사실적
 - ii. 스토리: 트로이/클레오파트라가 제대로 된 구조와 선명한 설명
 - iii. 고전적 스토리 vs. 현대인의 감성?